

#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성에 관한 연구

권현우 (성결대학교 융합학부 조교수)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개념
  - 2.2 서구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형성
3.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성
  - 3.1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에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 3.2 클럽 문화의 활성화
  - 3.3 일렉트로닉 음악관련 PC 통신 동호회
  - 3.4 일렉트로닉 레이블
  - 3.5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성
4. 결론

---

본 논문은 1990년대 생성된 인디 씬을 중심으로 한국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개념과 함께 서구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성과정을 살펴봤으며, 한국 형성기 인디 일렉트로닉 음악의 뮤지션, 레이블 관계자와의 반구조화 면접법을 실시해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형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먼저 주류 음악계에 도입된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을 살펴보기 위해 1990년대

초 한국 대중음악에서 하우스, 테크노를 비롯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요소의 도입과, 대중음악과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 댄스 클럽의 형성과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전파, PC통신 동호회 '21세기 그루브' 활동으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문화적 전파 및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클럽문화와 PC통신 동호회는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2000년대 이후 대중가요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결합과 한국적 토착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펌프기록과 DMS TRAX와 같은 테크노 전문 레이블의 활동과 음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들이 한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며 테크노 문화를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장르이지만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현재 진행형인 대중음악과 앞으로 다가올 대중음악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

핵심어: 일렉트로닉 댄스음악,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하우스 음악, 테크노 음악, 클럽 음악

## 1. 서론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Electronic Dance Music)과 관련 문화는 전 세계적 유행과 더불어 한국 K-POP을 대표하는 댄스 음악의 장르가 되었고, 대규모 록 페스티벌을 연상케 하는 일렉트로닉 음악 관련 페스티벌들과 클럽 문화 등 현재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대중적인 음악 장르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현재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라고 부르는 장르는 1970년대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와 텐저린 드림(Tangerine Dream)

으로 시작된 대중화된 일렉트로닉 음악과 흑인 DJ들을 주축으로 한 댄스 클럽 음악의 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 탄생한 하우스(house)와 테크노(techno)가 그것이다. 하우스와 테크노는 1990년대 영국에서 최고 절정에 이르렀으며, 전 세계 수많은 뮤지션에게 영향을 주었다. 팝음악 시장에서도 하우스와 테크노 음악이 점차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유명 뮤지션들 또한 자신의 음악에 하우스와 테크노를 비롯한 일렉트로닉 요소를 받아들였다.

2000년대 이후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유튜브(youtube), 베보(vevo) 등 영상 관련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비트포트(beatport)나 EDM.com 등 컴퓨터를 매개로한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자신들만의 장르 영역 개척 및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씬을 구축하고 있다. 비트포트의 장르 구분에 따르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덱스텝(dubstep), 딥 하우스(deep house), 프로그레시브 하우스(progressive house), 테크노(techno), 트랜스(trance),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 칠 아웃(chill out) 등 32개의 하위 장르로 나누고 있다.<sup>1)</sup> 나뉜 장르를 다시 하위 장르로 나뉘어 현재는 수십 개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하위 장르가 존재하며, 타 장르와의 결합으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현재에도 새로운 장르로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우스와 테크노, 트랜스, 일렉트로니카 등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DJ가 중심이 되는 클럽 음악이다. 이에 따라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순수한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음악이 아닌 춤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댄스 음악이다. 이러한 목적성 때문에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클럽문화와 함께 성장하였고, 음악의 상업적 이미지와 마약,

---

1) <https://www.beatport.com/> [2021.2.3. 접속]

게이, 파티 등의 역사적 이미지가 더해져 저급한 문화로 취급받기도 하였다.(권현우, 2017: 95) 이러한 이유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음악 역사적 연구에서 외면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연구는 일렉트로 어쿠스틱(electro-acoustic)(김효주, 2003), 구체음악(서정은, 2008), 노이즈 음악(이승린, 2017) 등 실험 음악으로서의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클럽을 중심으로 대중음악과 결합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분야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인디 음악 분야의 연구 또한 지역적(전경란 외, 2016), 산업적 연구(이정엽, 2010)는 존재 했지만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분야와 연계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 대한 연구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주를 이루는 아이돌 댄스 음악 등 대중음악과 클럽 및 페스티벌 등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관련 대중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에 유입되어 인디씬을 중심으로 하우스와 테크노 등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형성된 요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인디씬이 아닌 댄스가요에서 먼저 도입을 시작했다. 하지만 댄스가요에서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일렉트로닉 요소와 한국 가요 어법을 섞은 한국식 댄스 음악이었다. 인디씬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인디 씬에서 일렉트로닉 요소를 섞은 한국화 된 댄스 음악이 아닌 서구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본연의 모습을 구현,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음반 자료와 잡지, 신문 기사 등의 1차적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부족한 자료는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심층 면접은 한국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형성 당시 음반 및 공연 활동을 한 뮤지션들과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레이블 대표

를 반구조화 면접법으로 인터뷰하여 논문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개념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개념의 다양성과 모호성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1980년대 초 하우스 음악을 중심으로 파생된 하위 장르인 하우스(house), 테크노(techno), 하드코어(hardcore), 트랜스(trance), 트립합(trip-hop) 등 일렉트로닉적 요소를 가진 댄스 음악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과 기존의 일렉트로닉 음악(electronic music)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음악이 가지는 목적에 있다. 맥리드에 따르면 일렉트로닉 음악의 기본 개념이 음악의 재료와 제작 과정의 의미를 가진다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음악의 재료와 제작 과정과 더불어 춤이라는 목적성을 함께 가진 용어이다.(McLead, Kembrew, 2001: 60) 1990년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하위 장르로 발전한 인텔리전트 댄스 뮤직(Intelligent Dance Music, IDM)은 ‘몸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음악’으로(Alwakeel, Ramzy, 2001: 2), 움직임이라는 목적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를 들 수 있다.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테크노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하

위 장르 중 하나지만, 1990년대 말 넓은 개념에서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문제는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EDM이라는 단어의 개념이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electronic dance music)의 약자인 EDM은 언뜻 보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과 같은 용어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 EDM의 개념은 2000년대 후반 크게 유행한 하우스의 한 장르인 일렉트로 하우스(Electro House)를 기반으로 한 상업화된 하우스를 가리킨다. 하우스 음악에서 발전했고, 음악적 특징으로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과 맥은 함께하지만 EDM은 상업적인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장르에 편중된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박범근, 2019: 5)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하우스와 테크노를 중심으로 한 초기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으로 제한한다.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대중음악과 결합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서구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음악의 형성 요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2.2. 서구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성

초기 하우스 음악은 디스코 음악의 몰락 이후 디스코 음악의 영향 아래서 발전했으며, 1980년대 초반 드럼 머신과 미디의 발전과 함께 디스코와는 다른 새로운 장르로 탄생하였다. 주류 음악계에서 디스코의 몰락으로 댄스 클럽의 플로어를 책임질 새로운 음악이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1980년대 초 미국 시카고의 클럽을 중심으로 하우스 음악이 탄생하게 된다. 신현준에 따르면 하우스 음악은 시카고의 웨어하우스(Warehouse)라는 클럽의 디제이(DJ)를 맡았던 프랭

키 너클스(Frankie Knuckles)가 최초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우스(house) 음악이라는 용어 또한 클럽 이름인 웨어하우스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신현준 외, 1998: 49) 즉 하우스는 댄스 클럽을 토대로 한 언더그라운드 음악으로 시작한 것이다. 초기 하우스 음악의 특징은 반복적인 베이스 드럼 비트와 하이햇의 오픈 비트 연주,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베이스 연주 등을 들 수 있다.

하우스 음악은 1980년대 중반 새로운 음악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댄스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이어지는 댄스 폭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하우스 음악은 1990년대 댄스 음악의 중심적인 특징 될 새로운 기초 리듬을 댄스 음악에 선사했다. 하우스의 ‘포-온-더-플로어(Four on the floor) 리듬<sup>2)</sup>’은 다른 음악적, 비음악적 요소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그 위에 놓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프리스는 “다른 사운드를 쉽게 끌어들이 수 있고, 변화하는 템포와 새로운 영향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능력은 하우스가 성공을 거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하였다.(사이먼 프리스, 2005: 285) 이같은 하우스 음악의 특징은 하우스 음악과 다른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장르로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대화는 하우스 음악과 함께 떠오른 새로운 장르인 테크노(Techno)는 한국에 알려진 것처럼 일렉트로닉 음악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가 아닌 1980년대 초반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한 일렉트로닉 음악의 한 경향이라고 주장하였다.(이대화, 2015: 103) 1970년대 디트로이트의 경제난과 인종차별 등의 사회상황과 맞물려 1980년대 어둡고 진지한 성향의 테크노 음악이 탄생하였다. 후안 앳킨스(Juan Atkins), 데릭 메이(Derrick May), 케빈 손더슨(Kevin Saunderson) 등 테크노 뮤지션

---

2) 4/4박자에서 모든 비트마다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는 리듬 패턴.

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후안 앳킨스의 그룹인 사이보트론(Cybotron)의 성공으로 테크노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테크노는 하우스 음악과 사용하는 악기나 리듬, 또한 댄스 플로어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목적성은 비슷했다. 하지만 테크노는 하우스에 비해 좀 더 기계적이며, 반복적이고, 보컬을 뺀 인스트루멘탈의 경향이 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이대화, 2015: 163)

이 두 장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등 클럽씬에서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대중적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실제 대중적으로 먼저 성공한 곳은 영국이었다. 하우스 음악과 테크노는 1980년대 후반 지중해의 작은 섬인 이비자(Ibiza)의 클럽에서 영국의 댄스 클럽으로 확산되었고, 1987년 스티브 실크 헐리(Steve “Silk” Hurley)의 〈잭 유어 바디(Jack Your Body)〉가 영국 차트 1위에,(Reynolds, Simon, 2013: 23) 1988년 케빈 손더슨의 〈빅펀(Big Fun)〉이 영국 갤럽 탑 40 차트(U.K. Gallup Top 40)의 탑 10에 오르며(Sicko, Dan, 2010: 68) 영국에서 본격적인 대중화에 성공한다. 이후 마스(M/A/R/R/S)의 〈펌프 업 더 볼륨(Pump up the volume)〉 등 영국 자생적인 하우스 음악 또한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의 하우스 음악과 테크노는 영국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영국의 일렉트로닉 음악은 클럽과 파티를 아우르는 레ιβ(rave) 문화로 발전하며 음악뿐만 아니라 영국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두 장르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포-온-더-플로어 리듬을 사용했고, 타 장르와의 혼합이 매우 용이했다. 1990년대에 하우스와 테크노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이후 무수한 새로운 장르와 결합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장르를 파생시켰다. 1970-80년대를 주름잡았던 록 음악도 이 새로운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하였고, 대중음악과 거리



가 있는 앰비언트(Ambient) 음악 또한 하우스와 결합해 앰비언트 하우스라는 새로운 장르로 탄생하는 등 이후 수많은 장르가 만들어지며 대중음악의 확고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 3.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성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1990년대 후반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형성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형성 요인 도출을 위해 1차적으로 문헌, 신문, 잡지 기사를 참조 하였고, 초기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에서 활동 하였던 뮤지션인 이주노(캐스커), 이윤정, 이진원(가재발), 김택수(세인트 바이너리)와 전자음악 레이블 DMS TRAX의 대표 최원석을 대상으로 초기 일렉트로닉 음악 활동 등에 대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한 개별면담을 통하여 진행하여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형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PC 통신 동호회 관련과 레이블 관련한 자료는 대부분 면접 자료를 이용하였다.

#### 3.1.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에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영향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은 트로트와 발라드 음악으로 양분되었다. 1970년대 말 세계적인 디스코 열풍과 함께 1978년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뜬했었지〉와 〈장미〉 등이 히트 하면서 본격적으로 펑키 디스코 음악이 국내에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80년대 한국대중음악계에서 댄스음악은 주요 장르가 아닌 비주류 장르, 즉 ‘마이너(minor)’ 장르에 불과했다. 트로트와 발라드 음악의 이분법이 지배하고 있던 주류 음악계에서 댄스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다.(이규탁, 2007: 72) 물론 나미, 소방차, 김완선, 박남정, 철이와 미애 등 댄스 음악은 1980년대 10대 청소년이라는 음악 수용층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 음악계에서 조금씩 그 자리를 넓히고 있었다. 이후 1990년대 초 신세대 문화와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의 등장은 발라드의 주도를 뒤엎고 댄스음악을 1990년대의 주류 경향으로 정착시켰다.(이영미, 2006: 345)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는 랩과 테크노, 헤비메탈을 결합시킨 댄스음악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난 알아요〉는 랩음악, 테크노 음악으로 알려지면서(박성수, 1992) 일반인들에게 테크노 음악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같은 앨범 수록곡인 〈환상 속의 그대〉도 또한 테크노 음악으로 소개되면서(권오홍, 1995: 82) 새로운 테크노 음악의 유행을 일으켰다. 이후 현진영, 이오스(E.O.S), 잼(Jam), 터보(Turbo), 알이에프(R.ef), 롤라 등 수많은 댄스 음악들이 가요계에 쏟아졌으며, 이들은 대부분 테크노, 하우스, 레ιβ 등을 표방하며 자신들의 음악을 홍보했다. 1995년이 되자 댄스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계의 독보적 장르로 떠올랐고, 새로운 음악 장르, 즉 테크노, 하우스 등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 이 새로운 장르에 대한 소개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댄스음악과 일렉트로닉 음악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한국 댄스음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대중음악계의 트렌드가 된 하우스, 테크노 등의 새로운 장르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권현우, 2019: 3)

대중음악과 일렉트로닉 음악의 접목을 선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신해철과 윤상이 있다. 신해철은 그가 속한 밴드 무한궤도를 거쳐

자신의 솔로 1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록 음악 스타일 대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편곡과 사운드 디자인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한국 대중음악에 제시했다. 이런 새로운 스타일은 2집 「마이셀프(Myself)」 앨범 수록곡인 〈재즈카페〉, 〈50년 후의 내 모습〉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이후 자신이 결성한 밴드 넥스트(N.EX.T)의 1집 수록곡 〈도시인〉으로 이어졌다. 〈도시인〉은 ‘포 온 더 플로어’ 리듬, 샘플러(Sampler)의 사용 등 당시 서구 음악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애시드 하우스 장르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해 록과 일렉트로닉 음악의 접목을 시도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신해철은 한국의 초기 미디 음악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권석정, 2014)

윤상은 김민우, 강수지, 변진섭 등의 곡을 작곡하며 작곡가로서 음악계에 입문했다. 신해철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적극 이용한 음향을 선보였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와 자신의 1집 음반 수록곡 〈이별의 그늘〉의 반주는 기타와 바이올린을 제외하고 모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사운드로 만들 정도로 미디를 적극 활용한 음악을 선보였다.(김원겸, 2011)

이렇게 미디, 일렉트로닉 음악의 영향을 받은 신해철과 윤상은 1996년 ‘노댄스(nodance)’라는 일렉트로닉 그룹을 결성해 1집 ‘골든 히트’를 발표한다. ‘노댄스(nodance)’라는 그룹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댄스 음악으로서의 일렉트로닉 음악이 아닌 감상용 일렉트로닉 음악을 지향했다. 기존 한국의 대중음악과 테크노, 트랜스 등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결합시키려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가요와 록 음악의 어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장호연, 2000)

### 3.2. 클럽 문화의 활성화

홍대 클럽은 인디밴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이 공연을 하는 라이브 클럽과 DJ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댄스 클럽으로 나눌 수 있다. 안영라에 따르면 라이브 클럽은 1994년 ‘드럭’으로, 댄스 클럽은 1992년 당시 DJ로 활약하던 앵클이 ‘시티빗’이라는 레코드 가게를 오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안영라, 2009: 290) 이후 1992년 클럽 ‘발전소’가 오픈하였고, 기존의 록카페와 함께 해외 유학생들과 교포, 외국인들에 의해 테크노문화와 언더그라운드문화가 홍대 지역에 유입되면서 1995년 이후 본격적인 댄스 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최선영, 2011: 83) 1995년 클럽 ‘상수도’, ‘엠아이(M.I.)’, ‘호지부지’ 등 잇따라 클럽들이 생겨났고, 90년대 말까지 ‘JR’, ‘황금투구’, ‘마트마타’, ‘엔비아이엔비’, ‘101’, ‘108’ 등 홍대 지역에 많은 클럽이 운영되었다. 댄스 클럽은 테크노를 위주로 한 테크노 클럽과 힙합 클럽이 합세하면서 본격적인 클럽씬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는 서구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클럽의 DJ들을 통해 하우스, 테크노 등의 새로운 음악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음악에 마니아층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클럽들은 테크노, 하우스, 드럼 앤 베이스, 일렉트로 니카, 하드코어, 모던 록, 힙합 등 클럽마다 장르적 음악 색체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각 장르의 음악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3.3. 일렉트로닉 음악관련 PC 통신 동호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PC통신은 1990년대에 들어 개

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PC통신은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형태의 가상공동체 모습까지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 형태를 띠고 있었다.(이만제, 1997: 165) 이러한 가상공동체는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PC통신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동호회는 PC통신 내에서 주어진 게시판을 중심으로 자료실, 정보공유, 채팅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PC 통신 활동의 축소판적인 특성을 보인다.(이만제, 1997: 166)

1990년대 하이텔의 모던 록 관련 소모임인 ‘모소모’를 비롯하여, 나우누리의 힙합 동호회 ‘SNP’, 천리안의 고전음악동호회, 하이텔의 흑인 음악 동호회 ‘블랙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관련 PC 통신 동호회가 만들어져 운영되었다. 이들 중 하이텔의 일렉트로닉 음악 관련 동호회인 ‘21세기 그루브(21C Groove)’는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의 초기 일렉트로닉 음악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21세기 그루브(21C Groove)’는 1997년 11월 21일 하이텔 소모임으로 개설되었으며 그해 12월 이종근(아이디depeche)이 시삽대표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8년 10월 정식 동호회로 개설되어 2000년 5월까지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www.loop-o-matic.com) ‘21세기 그루브(21C Groove)’의 주요 활동으로는 일렉트로닉 음악관련 정기 음악 감상회, 공연 개최 활동을 펼쳤으며,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레이블과 연계하여 음반제작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테크노 뮤지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DJ 디코드(DJ Decode), 모하비, 달과란 등에게서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21세기 그루브라는 한국통신 하이텔 내 테크

노 동호회의 회원이라는 점이다. 국내 최초의 테크노 컴필레이션「techno @kr」의 참가 뮤지션들도 모두 21세기 그루브의 회원이기도 하다. 21세기 그루브는 단순한 동호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의 테크노 문화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문화집단이다.”(loop-o-matic.co.kr)

당대의 일렉트로닉, 테크노 뮤지션으로 활동한 모하비(Mojave), 달파란, 캐스커(Casker), 트랜지스터헤드(Transistorhead) 등은 모두가 동호회 소속으로 이들은 게시판에 마련된 채팅방을 통한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정보와 프로듀싱 정보, 또한 신디사이저, 드럼머신 등과 같은 각종 일렉트로닉 장비 정보 등을 공유하며 초기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형성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다.

### 3.4. 일렉트로닉 레이블

90년대 말 한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흐름을 이끈 펌프기록과 DMS TRAX는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대표하는 레이블이었다. 두 레이블 다양한 음반 기획 및 레이블 파티 등을 통해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다.

펌프기록은 1999년 1월 달파란을 중심으로, 트랜지스터헤드, DJ 에이사, DJ 최기준 등 전문 테크노 뮤지션과 21세기 그루브 운영자였던 강미라 등이 모여 만든 테크노 레이블이다. 레이블 이름인 펌프기록은 “방금 펌프질해 길어 올린 생수 같은 첨단 문화를 기록하자”(이승헌, 2000)라는 데서 만들었다. 펌프기록은 달파란의 음반을 기획하는 등 음반기획을 하기는 했지만, 공연과 파티를 기획하는 형태로 테크노 음악의 확산에 앞장선 테크노 무브먼트에 가까웠다. 대

표적 활동으로는 99년 4월 하이텔 동호회 ‘21세기 그루브’와 함께 강남 압구정 클럽 ‘타임 투 록’에서 ‘문스트럭99’라는 레이블 파티를 개최하였다. 본격적인 레이블 파티로 알려진 ‘문스트럭99’에는 트레 지스터헤드, 데이트리퍼, 휴고리얼 등이 참여하며 하우스, 테크노 음악을 공연하였다. 8월부터 매달 1회씩 홍대와 강남 클럽에서 ‘아우라소마’라는 이름으로 테크노 페스티벌을 개최 하며 테크노 음악과 테크노 문화를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DMS TRAX는 최원석이 만든 테크노 레이블로 펌프기록과 마찬가지로 1999년 1월에 설립되었다. 최원석은 테크노 뮤지션은 아니었지만, 테크노 뮤지션 세인트 바이너리(Saint Binary)와 미국 유학에서 만나 테크노 음악에 매료되어 한국에 돌아와 정식 레이블을 설립하였다. DMS TRAX는 주로 음반 기획 및 제작을 주로 하였는데, 세인트 바이너리의 데뷔 싱글 ‘밀림’을 비롯하여, 가재밭(Gazaebal)의 싱글, 퓨처아이트로니카(futurEYEtronica)의 데뷔 앨범 등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형성 초기의 많은 앨범을 제작하였다. DMS TRAX와 21세기 그루브가 공동으로 제작한 Techno@kr과 소니 뮤직과 함께 진행한 한일 합작으로 만든 P.L.U.R(Peace Love Unity Respect) 시리즈는 한국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형성될 시기의 음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5.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성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춤을 목적으로 한 클럽음악이다. 초기의 서구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클럽에서 DJ들에 의해 그 본모습이 만들어졌으며, 클럽에서 소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클럽 DJ들이 음반 프로듀서로서 변모하며 음반 형태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이 본격화되고, 대중화되는 과정을 통해 메인스트림 음악에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요소를 받아들여 하나의 장르로서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메인스트림 음악에서 먼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요소를 받아들였고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이후 클럽을 중심으로 한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의해 본격적인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물론 달파란(강기영)과 같이 DJ와 프로듀서 두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구의 경우처럼 DJ가 프로듀서를 병행하며 DJing과 음반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보다는 DJ는 클럽을 중심으로 프로듀서는 음반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8년 7월 달파란(강기영)은 테크노 앨범 「휘파람별」을 선보였다. 펌프기록에서 제작한 이 앨범은 테크노를 기반으로 하여 드럼 앤 베이스, 하우스, 트랜스 등의 장르를 담고 있다. 달파란은 PC통신 동호회 활동과 클럽 공연 활동, 파티 기획, 펌프기록 레이블을 통한 음반 제작 등 한국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형성 초기 한국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이끌었다.

모하비(Mojave)의 앨범 「테크노 전자음악 잠동사니」 앨범이 1998년에 함께 발매된 이후 1999년 세인트 바이너리, 가제발의 앨범과 「Techno@kr」, 「플러(P.L.U.R)」 컴필레이션 앨범이 발매되었으며, 2000년 퓨쳐아이트로니카, 트랜지스터헤드 앨범이 발매되며 인디 씬을 중심으로 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자리 잡아 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인디와 클럽 씬을 중심으로 한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점차 그 수가 줄어들게 된다.



## 4. 결론

미국의 클럽 음악으로 시작된 하우스, 테크노 등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클럽 음악, 언더그라운드 음악에서 주류 대중음악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류 음악인 댄스 가요에 먼저 도입되지만, 한국화 된 댄스 가요로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요소만 차용한 것으로 본질적인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생산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본질적 양식의 음악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형성되기 시작한 댄스 클럽을 중심으로 한 DJ 및 뮤지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디를 중심으로 한국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먼저 주류 음악계에 도입된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을 살펴보기 위해 1990년대 초 한국 대중음악에서 하우스, 테크노를 비롯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요소의 도입과, 대중음악과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 댄스 클럽의 형성과 그에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전파, PC통신 동호회 '21세기 그루브' 활동으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문화적 전파 및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클럽문화와 PC통신 동호회는 한국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펌프기록과 DMS TRAX와 같은 테크노 전문 레이블의 활동과 음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들이 한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며 테크노 문화를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형성 요인으로 하여금 한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되고 자신들만의 음악씬을 형성하며 한국 대중음악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이후 몇몇의 뮤지션들에 의해 자체적인 음악의 생산은 이루어졌지만, 록, 힙합과 같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대중음악과 지속적인 결합을 시도하였고, 2000년대 후반 대중음악상의 일렉트로닉 댄스 부분이 신설되는 등 대중음악에서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연구 진행에 있어 전무한 선행 연구들과 한정된 자료들로 인해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뷰 면접자 선정에 있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의 경우 섭외가 용이 했지만, 1990년대 당시 클럽 관계자들의 섭외가 어려워 다양한 면접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디를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준 인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성과 발전 등을 밝히고 한국 음악의 또 다른 단면을 조명했다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청년문화와 신세대문화, 음반 산업의 확장 등을 기반으로 댄스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장르로 떠오른 이후 현재까지 댄스 음악은 아이돌을 기반으로 한 K-POP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발전했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음악 장르이며, 향후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현재 진행형인 대중음악과 새롭게 다가올 대중음악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권오홍. 1995.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듣는다」, 정보게이트.
- 사이먼 프리스(Simon Frith) 외/장호연 역. 2005. 「대중음악의 이해」, 한나래.
- 신현준 외. 1998. 「입 닥치고 춤이나 춰」, 한나래.
- 이대화. 2015. 「Back to the house」, 엠스퀘어.
- 이영미. 2006.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 Sicko, Dan. 2010. Techno Rebels. Detroit, Michigan;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Reynolds, Simon. 2013. Energy Flash. London; faber and faber Ltd.

### 2. 학회지 논문

- 권현우. 2017.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 달파란의 <휘파람 코믹 댄스파티>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20, 대중음악학회: 93-116.
- 서정은. 2008. 「헬무트 락헨만의 ‘기악적 구체음악’(musique concrete instrumentale)과 음악사적, 미학적 해석」 『서양음악학』 11, 한국서양음악학회: 67-116.
- 안영라. 2009.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클럽문화 - 홍대 클럽문화의 텍스트적 구조와 문화적 실천성 - 」 『영상문화』 14, 한국영상문화학회: 287-335.
- 이만제. 1997. 「PC통신내 동호회 문화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9, 한국언론정보학회: 165-196.
- 이정엽. 2010. 「홍대앞 인디음악 씬의 문화경제」 『대중음악』 6, 대중음악학회: 68-96.
- 전경관 외. 2016. 「지역 인디 음악 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논총』 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72-298.
- 최선영. 2011. 「댄스클럽의 기업화에 따른 클럽문화의 변화와 지역 차별성의 강화: 홍대 이태원, 강남지역에 대한 취향 문화적 접근」 『지리학논총』 5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73-107.

McLead, Kembrew. 2001. "Genres, Subgenres, Sub-Subgenres and More: Musical and Social Differentiation Within Electronic/Dance Music Communities" *Journal of Popular Music Studies* 13: 59-75. Print

Alwakeel, Ramzy. 2009. "IDM as a 'minor' Literature: The Treatment of Cultural and Musical Norms by 'Intelligent Dance Music'." *Dancecult: Journal of Electronic Dance Music Culture* 1: 1-21. Print

### 3. 학위 논문

권현우. 2019. 「일렉트로닉 음악이 1990년대 한국 댄스음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효주. 2003. 「슈투트하우젠의 초기 전자음악 작품을 통한 구체음악과 전자음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탁. 2007. 「1990년대 한국 댄스음악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 혼종과 토착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린. 2007. 「1990년대 이후 국내 노이즈 음악의 위상과 질적 변화에 대한 연구: 소음을 매체로 활용하는 국내 뮤지션과 적극적인 청취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범근. 2019. 「EDM에서 나타나는 월드뮤직소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 신문 및 잡지 기사

권석정. <안녕 마왕>, 텐아시아, 2014, 10, 28

김원겸. <전자악기의 대중화를 이끈 팝스타들>, 네이버뮤직, 2011, 2, 21

박성수. <92대중문화 서태지 돌풍타고 랩 록뮤직 독주>, 경향신문, 1992, 12, 30

이승현. <테크노집단 '뽀프기록'>, 동아일보, 2000, 1, 9

### 5. 음반

Various. <Techno@kr>, Rock Records, 1999.

- 달과란. <휘파람별>, 오감엔터테인먼트, 1998.
- 모하비. <테크노전자음악잡동사니 = 타나토스>, Desert Fish Digital Recording, 1998.
- 세인트 바이너리. <Millim>, Hole Records, 1999.
- 가재발. <Gazaabal>, SM Entertainment, 2000.
- 트랜 지스터헤드. <Houseology>, Palette Music, 2000.
- 이윤정. <진화>, 동아기획, 1997.
- 노댄스. <골든히트>, 킹, 1996.
- 퓨처아이트로니카. <Futureyetronica>, Sony, 2000.

#### 6. 인터넷 사이트

21세기 그루브 홈페이지 : [www.loop-o-matic.com](http://www.loop-o-matic.com)

비트포트 홈페이지 : [www.beatport.com](http://www.beatport.com)

웨이브 홈페이지 : [www.weiv.co.kr](http://www.weiv.c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Korean Indie Electronic Dance Music

Kwon, Hyun Woo

(Sungkyul University Department of Convergence Assistant Professor)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electronic dance music in Korea, focusing on the indie scenes created in the 1990s.

To examine electronic dance music introduced into the mainstream music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dance music elements including house and techno in Korean popular music in the early 1990s, and attempts to combine popular music and electronic dance music were examined. Next, I investigated the formation of Korean dance clubs, the spread of electronic dance music, and the cultural dissemination and network formation of electronic dance music through the '21 Century Groove', a PC communication club. Club culture and PC communication club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formation of Korean indie electronic dance music, and since the 2000s, they have played a large role in the combination of popular songs and electronic dance music and indigenization of Korea.

In addition, I examined the activities and albums of techno-specialized labels such as 'Pumpgirok' and 'DMS TRAX', and confirmed that they were in charge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electronic dance music in Korea and spreading the techno culture to the general public.

Although it is a genre with a relatively short history, the study of electronic dance music will suggest a new research direction for popular music,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in Korea, and popular music to come.

Key words : Electronic Dance Music, Indie Electronic Dance Music, House Music, Techno Music, Club Music

논문 투고일: 2021년 3월 31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1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5일